



#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혁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니 임금 억제,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절실함을 보여 준다.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은 노동조합 자체를 비난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계급 전쟁의 사령관이 되겠다고 선포하자 국민의힘은 노조 회계를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범정부적으로 맹공을 퍼부어 화물연대 파업을 꺾은 것에 친기업 언론들이 환호하고, 보수층의 지지 회복 조짐이 보이자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연합체인 상공회의소를 찾아 노동 개혁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선언한 직후 노조를 겨냥한 '건설 현장 불법과의 200일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노동부에게도 건설노조 단속 권한을 주고, 엄격한 증거가 없어도 더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주노동자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서 임금이 오른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다.

반노동 공세의 본질이 기업 이윤 보

호를 위한 임금 억제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임금 억제의 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국적·인종별로 분열·경쟁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도 강화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내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올리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 노사정 대타협 일단 포기

윤석열이 '법치' 운운하며 부패한 개혁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노조에 덧씌우는 것은 보수 우파가 얼마나 단단히 부패에 뿌리 박고 있는지 잘 아는 지각 있는 한국인이라면 코웃음칠 일이다.

소수인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 횡령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에 부패가 퍼져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윤석열이 노동조합 회계를 공격한 것은 노조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온 행을 약점 삼은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 지도층의 윤신의 폭을 좁히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지도층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을 보자면, 윤석열의 공격은 김대중 이래 역대 정부들이 '노사정 대타협' 형식을 빌려 노동 개혁을 추진했던 것과 약간 다른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 개혁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빌렸다.

윤석열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자를 임명했지만, 한국노총 지도부는 친민주당 노선을 취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의 공격 개시 명령은 노동



개혁에 협조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을 아직 포섭하지 못한 것과 관계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아스팔트 우파'와 연대해 온 김문수를 임명한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윤석열이 거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음을 뜻한다. 노동 개혁은 노동운동 측이 막아 낼 수 없는 공격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재필은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취하지 않는 윤석열의 방식이 '성급하다'며 선불리 노동계 전체를 공격하지 말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윤석열이 필사적으로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나선 만큼 노동운동도 맞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개혁 입법 문제에서 민주당과 불가피한 공조를 할 때조차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 행동을 해야 한다. 화물연대 투쟁 배신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노동 개혁에서도 국민의힘과 타협할 공산이 꽤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치"를 내세우며 공격한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에 대항해 당시 운동 측은 법을 과감히 무시하며 싸웠던 덕분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기억해 볼 만하다.

### <노동자연대> 정규호에는 ...

윤석열의 신자유주의 개혁들 / 이태원 참사 / 윤석열 퇴진 운동을 둘러싼 논쟁 /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보는 이란 항쟁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부자 증세 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식의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약 57만 원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20만~4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 수백만 명은 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한다.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퍼센트로 OECD 평균(14.3퍼센트)의 2.8배나 된 까닭이다.

게다가 지금 서민 대다수는 불안정·저임금 노동으로 근근이 먹고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0~7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현실을 더 팍팍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기금 고갈?

정부와 기업주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양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고 도입한 것이지, 적금이나 민간보험처럼 각자 국민연금에 투자해서 노후에 수익을 챙겨 가라고 도입한 게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연금 지급을 보조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애초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초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어 기금이 쌓이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그해에 걷는 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처럼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서민층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돈을 거둬서 우

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을 보더라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연금 수지에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2040년에도 한국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의 7.8퍼센트에 그칠 것이다. OECD 평균(10.2퍼센트)보다도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연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필요한 돈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정부가 국민연

금 재정을 지원하게 만들고, 기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개악?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라고 포장하고 있다.

현세대가 많은 연금을 받으면 연금 재정이 열악해져서 다음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줄어들수록 젊은 세대의 ‘사적 부양비’(부모님 용돈)가 늘어나야 한다. 건강보험이 취약해질수록 젊은 세대가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부모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공적 연금이 취약해질수록 자식들의 개별 부양 책임은 커지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연금을 개악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젊은 층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면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처음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출수록 청년들은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서민층 내에서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고통 전가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은 젊은 시절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들은 늙어서 평안한 삶을 보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이 사회의 부를 독차지해 온 부유층과 기업주들이 내야 한다.

노동자연대 TV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12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차승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번역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

참가신청 bit.ly/1228-meeting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독자 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